

김우민, 세계수영 남자 자유형 400m 金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개인 최고기록 1초21 단축

한국 수영 경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23·강원도청)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민은 1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에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300m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세계신기록 페이스를 선보인 김우민은 일라이자 워닝턴(호주·3분42초86)을 0.15초 차로 제쳤다. 루카스 마르텐스(독일)가 3분42초96을 기록, 김우민에 0.25초차 뒤진 3위가 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등극하며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김우민은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한국 선수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김우민이 박태환 이후 13년 만이다. 박태환은 2007년 멜버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울러 박태환, 황선우(강원도청)에 이어 한국 경영 선수로는 역대 3번째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이빙까지 범위를 넓히면 통산 3개의 동메달을 딴 김수지(울산광역시청)까지 포함해 4번째다.

김우민은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5위를 차지할 때 작성한 종전 개인 최고기록인 3분43초92를 약 7개월 만에 1초21 앞당기며 금메달에 입맞추었다.

박태환이 가진 한국기록인 3분41초



김우민이 1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에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42초71을 기록, 금메달을 따낸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53에는 1초18 뒤지는 기록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다. 김우민은 메달 후보로 거론됐으나 우승권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우민은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6위에 올라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6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지난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도 예선을 6위로 통과한 김우민은 결승에서는 5위에 올랐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불과 5개월 남기고 열리는 이번 대

회에 다수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올림픽에 집중하겠다고 불참을 택했다.

하지만 남자 자유형 400m는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1~4위에 오른 선수 중 불참한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인 새뮤얼 쇼트(호주) 뿐이었다. 2, 3위에 오른 아메드 하프나우위(튀니지), 루카스 마르텐스(독일)와 4위 길레르미 코스타(브라질)가 모두 출격했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 엔트리 기록(2022년 10월 1일~2023년 12월 19일 세운 기록 중 개인 최고기록)에서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의 기록으로 5위였다.

그러나 김우민은 경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는데 성공했다.

은메달을 딴 워닝턴은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다. 3위에 오른 마르텐스는 2022년 세계선수권에서 2위,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3위에 올랐다.

앞서 김우민은 지난 11일 자유형 400m 예선에서 3분45초14로 전체 3위에 올라 결승행 티켓을 쥘었다. /뉴시스

올 프로야구, 로봇심판·피치클록·베이스 확대

시즌 전반기부터 변경된 제도 적용키로... 피치클록, 시범운영 거쳐 후반기 예정

2024시즌 KBO리그가 새로운 변화와 마주한다.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도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시즌부터 KBO리그에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 피치 클록, 베이스 크기 확대, 수비 시프트 제한 등 주요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발표했다.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ABS는 2020년

부터 퓨처스(2군)리그에서 운영돼 왔다. 1군 경기에 도입되는 건 올 시즌이 처음이다.

ABS의 스트라이크 존 좌우 기준은 홈 플레이트 양 사이드를 2cm씩 확대해 적용한다. 스트라이크 존 상하단은 각 선수별 신장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단 기준은 선수 신장의 56.35%, 하단 기준은 선수 신장의 27.64% 위치가 기준이 된다.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는 피치 클록은 투구와 타격 준비에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KBO리그는 전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후반기부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실전 경기에서 선수들이 피치 클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시즌부터 피치 클록을 시행한 메이저리그(MLB)는 경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9이닝 평

균 경기 시간이 2시간40분으로 종전 3시간4분보다 24분 줄었다.

베이스 크기는 종전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확대한다. KBO리그 전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월 중 각 구장에 신규 베이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베이스 크기가 확대되면 1투와 2투, 2투와 3투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 선수의 도루 시도 증가, 부상 발생 감소에 따른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해 MLB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단일 시즌 3000두투(3503개)를 돌파하면서 베이스 크기 확대의 효과를 봤다. /뉴시스

축구대표팀 경기 검토한다더니...

클린스만 미국 출국 논란

64년 만의 우승 노렸던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요르단전 패배 후 "대회 분석하고 보완하겠다"
약속과 달리 곧장 자택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사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을 분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곧장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12일(한국시간) '뉴시스'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0일 저녁 미국으로 떠났다"며 "귀국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11일 카타르의 2연패로 막을 내린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7일 치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0-2로 패배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이후 64년 만의 정상에 노렸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7위인 요르단에 사상 첫 패배를 당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 전략, 전술이 주된 탈락 요인으로 꼽혔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했으나, 이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전술을 택해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적재적소의 로테이션이나 선수 교체 없이, 특정 선수만 오랜 시간 기용해 체력적 과부하도 탈락 원인으로 평가됐다.

다소 허무하게 아시안컵 여정을 마쳤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답답했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패배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더 잘 준비하는 게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적재적소의 로테이션이나 선수 교체 없이, 특정 선수만 오랜 시간 기용해 체력적 과부하도 탈락 원인으로 평가됐다.

다소 허무하게 아시안컵 여정을 마쳤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답답했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패배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더 잘 준비하는 게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8일 진행된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주쯤 출국할 예정이다. 지금 월드컵 2차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예정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시범 대신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 주가 아닌 귀국 이틀 만인 10일 오후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대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하겠다는 말도 수행하지 미지수다.

KFA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을 되돌아볼 예정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설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으로 떠났다.

비대면으로 전력강화위원회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혹 비대면으로 참가해도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기 어려워, 얼마나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표팀 운영 전반을 검토할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클린스만 감독의 무책임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첫 승을 거뒀던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 전까지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다. 부인 후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둬 1992년 전일 감독계 도입 이후 첫 승 전보가 가장 느린 감독이란 오명을 썼다.

당시 부진한 성적에도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 자주 한국을 떠나 있는 등 외유·태업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3월 A매치 기간에 재소집된다. 태국과의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 4차전을 앞두고 내달 18일 다시 모일 예정이 다. /뉴시스

